

기고

아이돌봄, 복지를 넘어 일자리로

담양의 선도적 실험

담양군은 오는 8월부터 '조부모·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손자녀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매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는 만80세 이하로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직 전국 어디서나 시행되는 보편 제도는 아니지만, 담양군이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최초 제안자로서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아이돌봄 방안을 제안하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해 '정식 일자리'로 인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소득별 차등 지원 방식 대신, 유형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아이돌봄 교사 양성 필요성까지 지적하며 실질적인 맞춤 정책을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부터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는 가정이 '현재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이돌봄을 키우는 가정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은 보다 유연하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아이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담양군의회 부의장 박은서 의원

나치즘과 하이데거는 20세기의 역사와 문화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골칫거리'인 바, 이 둘의 만남은 지금까지도 현대철학의 크나큰 스캔들로 남아있다.

강성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철 철학티비



출세의 달인들-하이데거(5) 제자와의 사랑

수사적 취미를 금지 당했으며, 독일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좌절되었다. 프랑스 파리로 간 그녀는 유대계 망명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 일들을 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하이데거와의 관계를 회복한 아렌트는 청문회에서 하이데거를 위해 증언을 하기도 했다.

1959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등 '전체주의'에 대한 그녀의 분석은 통렬하고 탁월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20세기 실존철학의 거장 하이데거보다 17세나 어린 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년에 걸쳐 사랑을 지속할 수 있었던 한나 아렌트. 어느 날, 69세가 된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하이데거 곁으로 다가간다.

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애제자이자 사랑하는 여인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다. 1년에 겨우 서너 통 주고받을까 말까했던 편지만으로도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스승에게, 한나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한다.

제2차 대전이 끝나자 하이데거보다도 그의 라이벌(?)인 야스퍼스의 철학이 더 많은 독자를 갖게 되었다. 이해하기도 더 쉬운 데다 유럽 철학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도 야스퍼스를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매년 여름철인 7월부터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며, 연평균 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사고를 줄이기 위

벌쏘임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벌은 어두운 색상이나 꽃무늬 옷에 끌리므로 흰색이나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치우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 벌 유인을 방지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신용카드나 손톱으로 벌침을 긁어내어 제거한다.

에피네프린 주사기(에피펜)를 상시 휴대하고, 필요 시 즉시 사용한다. 숨쉬기 어려움, 어지럼증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벌 쏘임 사고는 개인의 주의와 환경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 소방과 김진오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음력 윤 6월 25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for August 18, 2025.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way 50th Anniversary'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the slogan 'We create the life line of the Republic of Korea!'.